



우리 친구 경숙이를 그리며

- YH 동우회

- ✦ 최순영 : 79년 8월은 유난히도 더웠다. 우리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하였고, 마지막날 경찰서로 끌려가던 조합원들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
- ✦ 김창희 : 아! 벌써 30주년이라니! 님은 갔지만 너의 살아남은 영혼은 우리 세대 가슴에 못이 되어 한이어라..
- ✦ 이근순 : 경숙아! 지켜주지 못해서 많이 미안했어.. 경숙아! 사랑해...
- ✦ 고영란 : 김경숙님의 이슬처럼 고운 숨결을 놓아 피운 민주주의 자유의 꽃으로 영원히 피우리.
- ✦ 강미진 : 강산이 세 번 바뀌어 경숙님의 추모식이 벌써 30회째임을 우리 모든 노동자들은 깊이 애도하는 마음입니다.
- ✦ 김양호 : 사랑이나 지성보다 더 귀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 준 것은, 30돌이 된 경숙이를 생각하며 그 시절을 그리워할 우정이 있기 때문이다.
- ✦ 박태연 : 30년세월 경숙이가 살아 있었으면 52세. 당신을 홀로 보낸 죄책감에서도 이제 벗어나려다. 당신이 있는 하늘나라 그곳 자유와 평화가 온누리에 가득할 것이야. 그러구 경숙아 사랑한다. 정말 미안하구나.
- ✦ 권순갑 : 너를 보내고 30년이 흘렀지만 우리 노동자들의 삶은 그때나 지금이나 고단하고 힘들기는 마찬가지란다.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
- ✦ 민경애 : 너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남아 있는 우리가 열심히 살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 ✦ 설영란 : 경숙아! 잘 지내지? 우리는 니 덕에 잘지내.. 사랑해...
- ✦ 김은정 : 한국현대사의 은하수. 김경숙 동지의 30주년 추도식을 맞이하여 YH 노조의 피땀어린 과정을 더 소중히 여기고 싶다.

고 YH 김경숙열사 30주기 추모제

아픔을 넘어, 역사를 넘어



일 시 _ 2009. 9. 21(월) 오후 2시~9시

장 소 _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 & 국제회의장

주 최 _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후 원 _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심포지움 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

오후 2시~4시 30분 |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

사회 _ 정문자(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과 민주노동운동

_ 강인순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 각 시대별 여성노동자들의 살아온 이야기

_ 70년대 신순애 청계피복 _ 80년대 윤혜련 가리봉전자

_ 90년대 정현숙 수미다전자 _ 00년대 김은숙 88컨트리클럽

영화시사회 YH 김경숙 그리고 우리들

오후 5시~6시 30분 |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

기념식 고 김경숙열사 30주기 기념식

오후 6시 30분~9시 |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회의장

사회 _ 배옥병(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

70년대 음식 나눔

민중의례

인사말 최순영(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 공동대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격려사 함세웅(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추모연혁 배옥병(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 발족보고 정문자(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YH동우회 인사

노래공연 김미란(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서금슬(성공회대 음악동아리BIS)

살풀이 춤 '푸리' (김경선 진주교방굿거리 이수자)

기증

아픔이 아닌 희망의 미래를 꿈꾸며

2009년은 참으로 힘들고 가슴 아픈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용산참사 사건부터 쌍용차 사건 그리고 진작 대통령 두 분의 죽음까지.....

특히 쌍용차 사건 때 평택공장에서는 30년 전 김경숙 열사를 떠나보낸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30년 전이나, 세기를 달리하고 있는 지금이나 우리나라 경제발전은 노동자들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땀 임금에 장시간 노동 한 것이 원동력이 된 것인데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참혹하기만 했습니다.

이처럼 김경숙 열사 사건은 더 이상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 이명박 정권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법질서가 중요하다면서 경찰력을 동원한 물리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먹튀'의 방식과 규모만 임금체불에서 자본유출로 달라졌을 뿐 외국의 부기성 자본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현실 속에서 30년 전의 아픔이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광화문 거리로 촛불을 들고 나왔던 여고생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나라의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래에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닌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 30년 전 고 김경숙 열사를 추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고 김경숙 열사의 죽음을 놓고 당시 경찰은 "김씨가 작전개시 30분전에 스스로 동맥을 끊고 4층 강당 건물 뒤편 주차장 쪽 창문 아래로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가려져 있었던 진실은 30여년 만에 군사독재 정권의 공권력에 의한 타살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지금도 이 땅의 주인인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투쟁의 산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YH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유신정권을 몰아냈듯이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경숙 열사가 죽어간 그 때로 역사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009년 9월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 공동대표 최순영 · 이철순

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

» 강인순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현재적 의미에서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민주노조 운동을 재평가한다.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은 공동체에 기반하여 삶의 전반을 함께 하고 함께 바꾸어 나가는 운동이었다. 지금과는 달리 이르러 남성중심, 대공장 중심의 노조운동에 가려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 오늘에 되살리는 복원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각 시대별 여성노동자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당시의 투쟁과 노동이 내게 준 의미, 내 삶에 미친 영향 등,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서술하며 나의 삶과 여성노동자운동 사이의 상관관계와 의미를 찾아본다.

《 신순애
청계피복



1970년대, 산업역군으로서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산업화에 몸 바쳤던 여성노동자들은 우리나라 경공업발전의 주역이었지만 열악한 작업환경과 저임금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녀들은 먼지 자욱한 작업장에서 일하고 야학에서 공부하고 노동조합에서 투쟁했다. 정말 한뼘 한뼘 열심히 살을 수 놓았던 우리의 맏언니들이었다. 그 중 청계피복 신순애 언니의 까마득한 추억을 더듬어 본다.

1980년대는 85년 구로연대투쟁으로 대표되는 늘봄 같았던 투쟁의 기억들이 가슴에 아리게 맺히는 시기이다.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노동조합들이 걸었던 연대투쟁을 전개한 것이 바로 구로연대투쟁이다. 대우야패럴 노동조합이 탄압에 대항한 구로지의 노동조합들의 연대투쟁은 정치투쟁으로 발돋움한 것으로 노동운동을 이끌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연대라는 새로운 화제를 가져왔다. 구로연대투쟁에 함께 했던 가리봉전자 윤혜련 언니의 기억을 풀어본다.

《 윤혜련
가리봉전자



》 정현숙
수미다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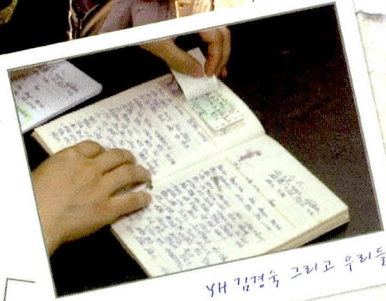
1990년대 외국자본들의 무도유배업, 공장의 해외이전으로 여성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고 집자리로 내몰려 했다. 미산수출자들은 직장에 있던 수미다 전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20대 초반의 여성노동자들이었던 이들은 자본의 침수에 굴하지 않았다. 헌해탄을 넘어선 일본원장투쟁, 22자에 걸친 교섭 끝에 결국 퇴직금과 밀린 임금, 노상 해고방지 철회 등을 이끌어내었다. 수미다전자의 위원장이었던 정현숙 언니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김은숙
88컨트리클럽



2000년대는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 양극화로 대표되는 각동의 파고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이미 70%가 비정규직이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인정조차 받지 못한 채 무권리 상태에서 일해야만 했다. 그러나 전국여성노동조합 88CC분회는 경기보조원 최초의 노동조합으로 수차례에 걸쳐 단체협약 체결한 바 있다. 이 10년이 된 노동조합을 MB정권은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다. 김은숙, 그녀는 투쟁 중이다.

YH 김경숙 그리고 우리들



YH 김경숙 그리고 우리들



YH 김경숙 그리고 우리들

연출 _ 장희선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졸업
웅인대 예술대학원 영화과 수료
영화제작소 청년 회원
〈WELCOME〉(1997), 〈고추 말리기〉(1999),
〈재희 이야기〉(2000), 〈화기애애〉(2005),
〈데이트〉(2008) 등 연출

연출 _ 김진상

항공대 경영학과 수료
영화제작소 청년 회원
〈Neo Funk〉(1996), 〈스트라이커〉(1997) 연출,
KBS수요기획 〈루이와 미애의 버스여행〉 촬영/편집(2003)
〈밀양〉(2006, 이창동), 〈멋진하루〉(2008, 이윤기) 등
메이킹 촬영/편집

6mm, 컬러, 55분.

연출 _ 장희선, 김진상, 조연출 _ 신동숙, 유은정

촬영 _ 정원구 음악 _ 이원경

제작 _ 한국여성노동자회,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

후원 _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인 고은 선생은 YH사건을 “유신체제의 폭력 앞에서 하나의 명작”이라고 표현했다. 일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하던 그녀들이 노동자의 위치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가며, 주장하기까지의 과정은 YH사건이 미친 영향들만큼이나 감동적이다. 그리고 그 안에 김경숙이 있었다. 어린 가정으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영세한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던 그녀에게 YH는 꿈을 가질 수 있는 곳이었다. YH엔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노동조합이 있었고, 원가를 배울 수 있는 야학이 있었고, 고향조차 못 가는 가난을 위로해 주는 벼들이 있었다.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단결을 외치던 김경숙. 그녀는 신민당사에서 주검이 되어 나왔고, 열사가 되었다.

그리고 30년.

대학 졸업 후, 높은 경쟁률을 뚫고 '지상의 스튜어디스'가 된 오미선. 자신이 이렇게 노동운동을 하게 될 지는 꿈에도 몰랐던 그녀는 현재 KTX승무원 노조 지부장이다. KTX승무원들의 투쟁은 3년이 넘어가면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투쟁 자체에 익숙해져서 투쟁이 생활이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도 노동운동가가 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YH 선배들을 보면, 자신의 30년 후를 떠올린다. 과연 30년 후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궁금해 하기도 한다.

한 사람은 열사로 죽었고, 한 사람은 지부장으로 살고 있다. 30년 후의 모습이 무엇으로 결정이 되던 그들은 거기에 있었다. 부조리에 분노하고 그래서 행동하는, 함께하는 동지들이 소중한 노동자.

김경숙, 오미선,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이런 갈등과 분노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안고 살아 간다. 그렇게 살아 가는 자체가 희망이기 때문이다.

79년 YH 투쟁과 고 김경숙 열사

YH사건의 의의

YH사건은 60년대 이후 누적되어 온 비민주적 사회상황과 사회경제적 모순이 첨예한 형태로 폭로된 상징적 사건이었다. 신민당사에서의 농성과 경찰의 폭력적 진압행위는 경제투쟁선상에서 출발한 YH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시켰으며,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정국이 경색되고 마침내는 부마 민중항쟁과 이에 이은 유신정권의 몰락이 초래되었다.

YH사건은 유신정권의 대표적 말기현상인 분배구조 왜곡과 권력과 재벌 및 자본가와의 유착이 낳은 필연적 사건이라는 게 사회학자들의 일반적 평가다. 특히 이 사건 이후 유신정권의 민주, 인권운동과 노동자 생존투쟁에 대한 탄압이 더욱 심해져 김영삼 총재 제명, 부마민중항쟁으로 이어졌다. 결국 10. 26 이라는 권력의 말로로 이어짐으로써 이 사건의 상징성은 더욱 뚜렷해 진다.

민주노조가 강고한 단결력을 기초로 전개한 투쟁은 개별사업주에 대한 위협을 넘어 때로는 국가권력에도 타격을 가할 수 있다. YH무역 노동조합의 신민당사 농성투쟁은 개별 민주노조의 투쟁이 정권의 운명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투쟁의 차원은 비록 직장폐쇄에 항의하는 경제적 차원이었지만 그 성과는 유신체제의 몰락에 대한 커다란 기여로 나타났다.

YH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한국현대사에 있어 하나의 획을 긋는다. 그것은 일제자본에 의한 노동의 절대적 종속이 강요되고 식민지적 착취가 강행되던 그 암흑기로부터 분명히 일어났던 노동자들의 투쟁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치투쟁의 형태이든 경제적 지위향상 및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든 결과적으로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한 운동이라는 시각에서 YH야말로 민주화의 한 상징인 것이다.





YH사건 일지

1979년 3월 29일

YH사측에서 4월말 폐업한다는 공고를 냄

1979년 4월 2일

무책임한 기업의 작태와 비인간적인 폐업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노동청북부지방사무소를 찾아갔으나 소득 없이 돌아옴

1979년 4월 6일

긴급대의원대회를 통해 정상조업을 위한 대책과 타업체에서의 인수 및 고용승계대책 협의

1979년 4월 13일

조합원총회를 열고 농성을 시작·생존권과 노동권의 보장, 폐업 공고 철회, 고용승계, 임금청산 등을 요구

1979년 4월 17일

회사측은 노동청 박창규차장과 관계기관, 태능경찰서 담당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폐업공고를 철회하고 회사를 정상화시킬 것을 약속. 노동청에서도 임금체불이 없도록 노동청이 책임지겠다고 함. 이에 노동자들은 다음날부터 생산에 참여했으나 약속된 사항들은 실행되지 않음.

1979년 7월 19일

노동청과 면담했으나 약속은 상황이 바뀌어 이행될 수 없으며 해결방법도 없다고 답변함. 사장도 정상화방법이 없으며, 이대로 나가면 월급,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발뺌함.

1979년 7월 25일

긴급대의원대회를 열어 30일까지 정상화 해결이 되지 않으면 조합원총회를 열기로 결의함. 이에 태릉경찰서에서는 진상해명서를 배포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며 회사정상화에 대한 회의를 30일에 열겠다고 제안함.

1979년 7월 30일

회의는 성사되지 않고, 조합원총회를 열어 농성에 들어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12시까지 농성을 계속함.

1979년 8월 6일

회사는 일방적으로 폐업공고를 냄.

1979년 8월 7일

기숙사, 식당 폐쇄. 퇴직금, 해고수당을 8월 10일까지 미수령시는 법원에 공탁한다는 공고를 냄. 노동자들은 기숙사에서 철야농성을 계속함.

1979년 8월 9일

노동자들은 마지막으로 마포 신민당사로 찾아감. 200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신민당사 철야농성에 들어감.

1979년 8월 10일

기동경찰대가 강제해산시킨다는 풍문이 도는 가운데 긴급결사총회 개최. YH무역을 은행관리업체로 인수할 것, 정부당국에서 장용호회장을 소환할 것, 조속한 기업정상화를 통해 여성노동자들의 생계대책을 강구할 것, 경찰이 투입돼 농성을 강제해산시키려할 때는, '최후의 한사람까지 모두 죽음으로 맞서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함.

1979년 8월 11일

새벽 2시경 소위 '101호 작전' 개시. 천여명의 기동경찰대가 투입되어 여성노동자들을 심한 욕설과 폭력으로 강제연행함.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당원 30여명, 취재기자 12명, 여성노동자 백여명이 부상당함.

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이었던 김경숙이 시신으로 발견됨.

김경숙 열사 약력



1958년 6월 5일

전라도 광산군 비야면에서 아버지 김용귀와 어머니 최영자의 장녀로 출생.

1965년

부친 김용귀 사망으로 어머니 행상, 경숙가사 전담으로 국민학교 입학 못함.

1966년

광주 남국민학교 입학

1971년

국교 6학년 겨울방학을 계기로 광주의 누에고치 공장에서 노동자로 출발

1973년

김경숙 서울로 상경, 양동에 있는 하청 제품공장, 한품섬유, 태진산업, 이천물산 등을 전전하며 봉제공장 미싱사로 노동함

1976년 8월 30일

YH무역(주) 입사

1977년 6월

YH 노동조합이 설립한 녹지야학 입학

1978년 3월

YH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선출

1978년 7월

YH 노동조합 소그룹 차돌이 그룹장으로 활약

1978년 12월

녹지야학 졸업

1979년 1월

동일교회에서 실시한 사회과학 공부 시작

1979년 3월 30일

YH무역 (주) 일방적 폐업공고 발표로 YH 사건 시발

1979년 4월 13일

YH 노조 폐업철회 공장점거 농성. 5일동안(폐업 1차 철회함) 김경숙 동지 후생부 책임담당으로 활약

1979년 5월

YH노동조합 조직부 차장으로 파선

1979년 7월 25일

회사정상화를 위한 노조대의원 대회 때 "회사 정상화 추진위원 56명" 구성, 김경숙 위원으로 활약

1979년 7월 30일

회사 정상화를 위한 노동조합원 총회의 날 김경숙은 자신의 머리카락에 "단결, 투쟁"이라는 혈서를 씌

1979년 8월 8일

노조 조합원 신민당사 진입 직전날 노조조합원 편지쓰는 시간에 김경숙은 정부고위층에 보내는 탄원서 작성 (사건 발생되자 이를 소유하고 있던 김정열 조합원이 소각시켜 버렸음)

1979년 8월 9일

신민당 당사 점거농성

1979년 8월 10일

신민당사에서 YH노동조합 종결대회 준비 임원회의 때 단호한 결사표명

1979년 8월 11일

새벽2시 2천여명의 경찰이 '101호작전'에 의해 신민당사에 난입 강제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김경숙열사 사망

2008년 3월 19일

공권력 탄압에 의한 타살로 밝혀짐

진실화해위원회는 "김경숙씨는 손등에 직경 4cm의 파이프 같은 둥근 관에 의한 상처를 입었고, 후두 정부를 모서리 진 물체로 가격당해 숨졌다"고 밝혔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기록 - 서울시의 신민당사 주변 항공사진, 국가기록원의 청와대 의전일지 등 자료를 분석 및 재조사 결과 당시 경찰 주장과 달리 시신에는 동맥을 절단한 흔적이 없으며 추락현장에 상처를 야기할 특정한 물체가 없었다고 함

김경숙열사가 남긴 글

신민당사에 들어가기 직전 기숙사에서 농성을 하던 중에
고향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



- 전략 -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장용호 회장이 미국으로 돈을 외화도피시켜서 저희 근로자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어요. 저희 회사는 외국 수출품으로 인하여 대통령상까지 받게 됐는데 돈많은 회장이나 사장들은 자기만 잘 살겠다고 저희 근로자들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현재 사용주 사장은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고 폐업공고까지 붙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저희 힘이 약한 근로자들은 힘을 합하여 단결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저희들의 힘이 강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 위로하며 웃으면서 기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저희의 힘이 강하여 회사의 사장은 수단과 방법을 다 활용하여 여러 가지 일을 꾸밀지 모르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내 편지 아니면 믿지 마시고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의 문제는 곧 해결된답니다.

여름의 번덕이 심한 날씨에 고생하시는 어머니의 그 모습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잊지는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곳에서 사작하고 다른데 취직하려고 하여도 계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판매되는 옷들이 팔리지 않아 실업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직장을 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에요. 또한 이곳에 일하는 나이 어린

여러 근로자들을 위하여 끝까지 단결하여 저희들은 꼭 승리하고 말겁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제 할 일은 제가 알아서 다 할겁니다.

준곤이는 끝까지 누나의 힘을 버리지 않고 도와 주겠습니다.

이 회사문제가 해결되면 어머니님 다시 찾아뵙게요.

사장이나 미국에 있는 장용호처럼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 잘 살면 돈 없는 자들을 마음대로 하나 보지요. 그렇지만 돈없는 자들은 착한 마음을 지니고서 우리들의 처지를 기억하여 성실하고 정의로써 사는 일입니다.

김경숙열사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쓴 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는 어느 누구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사람이었다.

집안환경 관계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의 차이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다가 나이 8세가 되던해 아버지는 갑작스런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다.

우리집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당장 날품팔이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야만 하였다. 없는 가정에서 어렵게 어머니의 수고로 국민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졸업하기 직전 겨울방학 때부터 공장에 취직을 하였을 때 돈에 구애를 받던 나 자신은

이 가난한 우리 가정이 잘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 내가 배우지 못한 공부를 동생에게 가르쳐서 동생만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었다. 그리하여 고향을 등지고 타향에 발을 붙이게 된 것이다.

맨처음에는 커다란 포부로 꿈을 안고 서울로 왔으나 와서 보니 별 것이 아니었다.

고향에서 생각했던 꿈은 이룩할 수 가 없었다.

이 곳에서 내 힘닿는 데까지 힘써 살아가리라고 다짐했다.

하청공장에 취직을 하여 말만 듣던 천야작업을 밤낮 하면서 약 2개월은 나의 코를 건들지도 못했다.

너무나 피곤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코피가 나는 것이다.

나의 몸은 더욱 약해지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어떤 회사에서는 봉급을 약 3개월치를 받지 못했다.

혈빛고 굶주리며 풀뽕5원짜리 30원어치로 추위에 허덕이며 생계를 이어가기도 했다.

이렇게 시느니 차라리 자살이라도 해버리려고까지 마음을 먹었으나 고향이 그 길을 막았다.

하청공장에서는 작업관계로 일요일이 없었다. 그리하여 어쩔 수 없는 경영부실로 인해

여러 차례 회사를 옮기게 되었다.

젊고 싱싱한 나이에 우리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공장안에서 여러형태의 억압을 받으며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혼탁한 먼지속에 왕왕대는 기계소리를 들으며 어언 8년 동안 공장생활하는

나 자신을 볼 때 남은 것은 병밖에 없다.

몸은 비록 병들었지만 마음은 상하지 않는 인간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리라 다짐한다.